

安·孫·鄭 손잡나... 힘 받는 국민의당 ‘빅텐트’

〈철수〉 〈학규〉 〈운찬〉

安, 孫 연대설에 “당 열려있어”
박지원, 鄭 출판기념회 찾아 구애
반기문과 단일화 가능성도
김종인 합류 땀 정치권 빅뱅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간의 연대설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대선 판도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했던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주춤거리자 정체성이 야권 성향인 국민의당과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과 점점 거리를 벌리며 공동 분모를 넓혀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반 전 총장 측이 내세운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론’보다는 국민의당과 중도 중심의 ‘빅텐트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손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정치적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민의당과 어떠한 형태로든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일대 일 구도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설과 관련해 “본인 판단 아니겠는가. 국민의당은 항상 열려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창립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정운찬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 “정 전 총리의 동반성장과 국민의당의 공정성장은 맥을 같이 한다”며 “정 전 총리는 열려있는 분이요 국민의당도 열린 정당이다. 반드시 우리 국민의당에 오셔서 꼭 한 번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 측은 22일 국민주권개혁회의 발대식과 함께 정치권 빅뱅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시점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이나 제3지대 세력 간의 연대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 김한길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호남 일부 중진들과도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에 입당, 경선을 해볼만하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찬 전 총리 측도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구애가 싫지 않은 표정이다. 국민의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거나, 정 전 총리가 내세우는 ‘동반성장’을 정치 세력 간의 연

대 고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가 연대 전선을 형성, 막판 제3지대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대표가 일부 비문(비문재인) 그룹과 함께 탈당, 제3지대 구축에 나선다면 정치권의 빅뱅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정부에 반기상씨 체포 요청
반기문 “동생 심려끼쳐 송구”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혐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해한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정권교체, 민주 적자인 내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서울 대학로서 즉문즉답 행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지금 이 시대의 끝은 시대교체이며,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 선거”라며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에서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이다. 함께 바꾸자”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승화, 지난 시대의 적폐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을 소망하고 있다”며 “87년 6월 항쟁 이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안 지사는 “저는 민주당의 적자이다.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라며 “제



무현의 길을 따라왔다. 끝까지 그 길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꿔야 한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박정희 시대와 차별하고 당당하고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꾸자”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며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한 초당적 대처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쇠신인듯 쇠신아닌 ‘인적 쇠신’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3년 정치·윤상현 1년

인명진 “탈당과 돌아오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친박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치 3년,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치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류여해 당 윤리위원은 브리핑에서 서·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제과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계과 갈등에 동조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이 정치되던 공천을 받거나 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에 출마할 수 없으며, 당원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의원총회에도 출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들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라며 “법적 대응으로 징계를 무효화시키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다음날인 21일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당내계과 책임자 3명을 징계한 어제는 새누리당 역사에 혁명적인 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한 만큼 탈당 의원들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 인증샷, 손가락 V·엄지손가락 가능

그동안 금지되던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투표 인증샷이 가능해진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손가락 인증샷 게시 등에 오는 혼란이 줄어들게 됐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단 발송 횟수를 제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규

제한다.

또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거위의 별도 규칙을 통해 여론조사기관이 통신비를 일부 부담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줄어든 관심·좁아진 선택지... ‘진퇴양난’ 반기문

바른정당·국민의당 가도 기반 약하고 창당 현실화 어려워

3지대 정치인들과 연대방안 모색...25일 전후 구체화 관측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적 선택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입당, 창당, 연대 등 크게 3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인 상황이다.

다만, 귀국 이후 행보가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치적 선택지를 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자신의 의지를 측근들에게도 내비치지 않은 채 ‘백지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기존 정당을 택하더라도 선택지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배제된 상태다. 남은 곳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다. 두 당도 반 전 총장에 대한 영입 의사가 있

다. 바른정당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를 반영하지 않거나 비중을 확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무성·정병국·주호영 등 바른정당 중진 의원들은 반 전 총장 측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당내에서 기반을 잡는 게 쉽지 않고,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 측에서는 창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당에는 지금은 물론 조직, 시간 등이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반 전 총장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과 함께 창당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반 전 총장 측에서는 정당에 몸을 두기 보다는 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제3지대의 구심점이 되어 대선 연대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에 머무를 계획이다. 따라서 제3지대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연휴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관훈클럽 토론회가 예정된 오는 25일 전후에는 정치적 선택지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훈클럽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계기로 반 전 총장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6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1백 ▶ 최저가 7억7천1백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치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7백 ▶ 최저가 12억4천1백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16억3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18억4천6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최고의 투자가치 월수익 최상 (대기업 임대중) 토지 9,280㎡ 건축 2,885㎡ 매매가 170억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당후 협의가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는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